

[고2 장비2]Ⅲ-1-(1) 개화기 ~ 1945년의 한국 문학

거울

(이상)

<작품 감상>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원손잡이오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원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야마는

또깨달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꼭섭섭하오.

<핵심 정리>

갈래 : 관념시, 초현실주의시

성격 : 주지적, 초현실주의적

주제 : 현대인의 자아 분열과 그 갈등

표현 : 상징, 의식의 흐름

어조 : 독백적 어조

시구 풀이

- ① **거울** : 자아를 비추어 주는 물건이지만, 여기에 비춰진 자아는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선 모습이어서 이로부터 분열을 자각하게 됨.
- ②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 거울 속과 거울 밖의 세계 단절
- ③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 : 현실 속의 자아와 내면의 자아 사이의 의사 소통의 단절 상황
- ④ **원손잡이** : 진정한 자아에 상반된 행위를 하는 존재.
- ⑤ **악수를모르는원손잡이** : 화해를 거부하는 존재. 나의 의도나 참모습과 상반된 존재라는 뜻. 자의식에 의해 분열된 자아와의 대립을 표현하고 있다.
- ⑥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져보기만이라도했겠소** : 나의 참된 모습을 비추어 주지 못하지만, 그나마 거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빼놓아진 나의 모습이나마 볼 수 있겠소. 왜곡된 자아에서 참된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존재의 역설적 행위를 보여 주는 말이다.
- ⑦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 현실적 자아와 내면의 자아 사이의 분열의 극한

⑧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 거울 속의 자아가 독립하여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상태로 나온 순간. 여기에서는 분열이 극에 이르러 거울 속의 허상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분열되었다.

⑨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꼭섭섭하오** : 두 자아의 유사성과 독자성이 나타난 부분으로 현실의 자아(의식)가 분열된 다른 한쪽(무의식)을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뜻.

파임

- ① 1연 거울 속의 밀폐된 세계
- ② 2연 의사 소통 단절
- ③ 3연 자아 상호간의 단절
- ④ 4연 거울 때문에 '나'와의 대면이 가능함
- ⑤ 5연 자아의 이중화
- ⑥ 6연 분열된 두 개의 모순된 자아

참고 : 거울의 기능과 의미

인간이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의식, 곧 자의식을 통해 서이다. 이상의 이 시는 '거울'이 현실을 거꾸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매개로 하여 이 두 개의 자아가 한계를 교묘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의식적 자아)에게 있어 거울 속의 공간은 전연 낯선 공간이고 거기서 느끼는 소외감으로 하여 필연적으로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 '거울 밖의 나'는 본질적 자아와는 다른 하나의 낯선 존재로서 '거울 속의 나'를 만나는 것이다. 이상의 자기 인식은 이처럼 다른 아닌 자기 분열에 있다. 이런 자기 분열의 고통은 자의식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와 만날 수 없는 법칙 앞에서 더욱 악화된다. 한 마디로 '거울'은 나를 만날 수 있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자아의 단절을 인식하게 되는 도구가 된다.

<단원평가 문제>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원손잡이오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원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①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야마는

또깨달았소

②나는거울속의③나를근심하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꼭섭섭하오.

1.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주된 태도는?

- ①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 ② 모순된 내면 의식에서 갈등하고 있다.

- ③ 본질적 자아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 ④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 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2. 다음 중에서 이 시의 셋째 연에 나타난 의미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것은?

<보기>

㉠별판한복판에꽃나무하나가있소.㉡근처(近處)에는꽃나무가하나도없소.㉢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는열심(熱心)으로생각하는것처럼열심으로꽃을피워가지고있소.㉣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에게갈수없소.㉤나는막달아났소.한꽃나무를위(爲)하여그려는것처럼나는참그런이상스러운흥내를내었소.

-이상, <꽃나무>

- ① ㉠ ② ㉡ ③ ㉢ ④ ㉣ ⑤ ㉤

3. 이 시 마지막 연의 1,2행과 같은 표현 방법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 ①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 ②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 찬란한 슬픔의 봄을
- ③ 이제 봄날은 가고 / 황홀한 재앙의 시간도 / 오래지 않으리
- ④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 ⑤ 안개 자욱한 화원지(花園地)의 벤치 위엔 / 한낮의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든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4. 띄어쓰기를 무시한 이 시의 작가의 의도를 가장 잘 말한 것은?

- ① 새로운 표현 기교를 중시하는 시인의 창작법을 충실히 따른 것 같아.
- ②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려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것 같아.
- ③ 어려운 현실을 이겨 내려는 강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 같아.
- ④ 인간은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한 것 같아.
- ⑤ 논리성을 부정하면서,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 의식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려는 것 같아.

5. ‘외로워’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일상적 자아의 현실에 함몰된
- ② 일상적 자아 혼자만의
- ③ 본질적 자아와 합일된
- ④ 현실로부터 소외된
- ⑤ 현실적 자아와 반대되는

6.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자의식의 세계를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를 통해 자아 성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초현실주의적 수업을 통해 일상적 질서를 넘어서고 있다.
- ④ 전통적 정서를 계승하여 현대인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자아 분열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7. 위 시의 ‘거울’을 ㉠라고 했을 때, 다음 <보기>의 ㉡와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모래알 같은 이름 하나 불러본다
기어이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땃줄을
깊은 땅에 묻고 돌아선 날의
막막한 별판 끝에 열리는 밤
내가 일천 번도 더 입 맞춘 별이 있음을
이 지상 사람들은 모르리라
날마다 잃었다가 되찾는 눈동자
먼 부재의 저편에서 오는 빛이기에
끝내 아무도 볼 수 없었으리라
어디서 이 투명한 이슬은 오는가
얼굴을 가리우는 차가운 입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물방울 같은 이름 하나 불러본

- ① ㉠와 ㉡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분신이다.
- ② ㉠와 ㉡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사물이다.
- ③ ㉠는 절망적 현실을 상징하고, ㉡는 소망의 성취를 상징한다.
- ④ ㉠는 화자와 대립하는 사물이고, ㉡는 화자와 융합하는 사물이다.
- ⑤ ㉠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고, ㉡는 그리움의 대상을 향한 통로이다.

8. 이 시에서 자아 분열이 가장 심화되어 표현된 연은?

- ① 1연 ② 2연 ③ 3연 ④ 4연 ⑤ 5연

9. 위 시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① <보기>와 달리 [가]에는 부모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군.
- ② <보기>와 달리 [가]에는 자기 희생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군.
- ③ [가]와 달리 <보기>에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군.
- ④ [가]와 달리 <보기>에는 고뇌와 자기 성찰이 점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군.
- ⑤ [가]와 달리 <보기>에는 분열된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화합하고 있군.

10. '거울'의 이중적인 기능을 언급하고 있는 연을 쓰시오.

11. 이 시의 '악수'와 <보기>시의 밑줄 친 '악수'를 중심으로 두 시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보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2. 이 시에서 '거울'의 역할을 쓰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종락>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13. 5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자아 분열이 극에 달해 그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 ② 분열된 자아가 미래에 화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③ '외로된사업'은 '단절, 고독'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 ④ 거울을 향했던 시선이 거울 없는 공간으로 옮겨지고 있다.
- ⑤ 거울 속의 나는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14. 다음 중 발상과 표현면에서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②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꾀대 끝에 /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퍼다.
- ③ 눈물이 속된 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九天)에 호곡(呼哭)하리라.
- ④ 하이얀 모색 속에 피어 있는 / 산협촌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 파아란
역등을 달은 마차가 한 대 잠기어 가고,
- 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 열 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
우니 /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15. 다음 중, 5연과 발상과 표현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아아, 남은 갔지마는 나는 남은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②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③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 미지의 까마득
한 어둠이 된다.
-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 ④ 꿈을 야스나 네게 물으면 / 플라타너스 /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 아침이면,
/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16. '㉠ : ㉡'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① 분열된 자아 : 통합된 자아
- ② 이상적 자아 : 내면적 자아
- ③ 현실적 자아 : 내면적 자아
- ④ 현실적 자아 : 일상적 자아
- ⑤ 일상적 자아 : 분열된 자아

17. 자동기술법을 사용한 시인의 의도와 그에 따른 시적 효과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무의식의 연속적인 흐름을 시각화하려 한 것이다.
- ② 전통적인 시의 방법에 대한 의식적인 반란을 기도했다.
- ③ 독자들에게 신선한 지적 충격을 가해 준다.
- ④ 일상적인 삶의 질서, 가치관 등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했다.
- ⑤ 이 같은 진술 방식은 난해하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방법이다.

18. 이 시에서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 사이의 관계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화해할 수 없는 대립, 분열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것이 치유될 가능성은 없다.
- ② 대립·모순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화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③ 모순적인 공존(共存) 상태에 있지만, 조화나 일치보다는 대립과 분열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④ '거울 속의 나'는 일상적 자아를, '거울 밖의 나'는 일상적 자아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의식 세계를 가리킨다.
- ⑤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는 비록 분열되어 있지만, 양자를 지배

하고 있는 삶의 원리는 동일하다.

19. 이 시의 시적 화자와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靑 무 발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젖어서 /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②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③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 까맣게 물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
- ④ 고향(故郷)에 돌아온 날 밤에 /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 어둔 방(房)은 우주(宇宙)로 통하고 /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 백골(白骨)을 들여다 보며 /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 백골이 우는 것이냐?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⑤ 삶은 오직 갈수록 씹쓸하고 /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 이 밤을 그대는 / 나도 모르는 / 어느 마을에서 쉬노뇨. - 박두진 <도봉>

20. 이 시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각이 떠오르는 그대로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군.
- ② 일부러 어린아이가 쓴 것 같은 효과를 내려고 했나 보군.
- ③ 규범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군.
- ④ 행간이 의미를 더 깊이 숨겨 놓아 난해한 시를 만들려 했군.
- ⑤ 규율의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 세계를 드러내려고 했군.

<정답 및 해설>

- 1) ② (해) 이상은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의 분열을 상징화한 작품들을 통해 현실과 이상, 행동과 의식을 일치시키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던 식민지 지식인의 삶의 고뇌를 잘 보여주고 있다.
- 2) ④ (해) 셋째 연은 표면적으로는 거울에 의해 분열된 두 자아의 결합 또는 화해가 불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두 자아 사이에는 일치할 수 없는 단절이 존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㉔은 이 두 자아의 결합을 위한 노력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3) ⑤ (해) 마지막 연의 1, 2행은 이 시의 제재인 '거울'이 지닌 모순된 속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구절로, 이 시의 시적 논리 전개에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서로 상치(相馳)되는 역설적 표현과 거리가 먼 것을 찾으면 된다. ①은 '괴로웠던'과 '행복한'이, ②는 '잔란한'과 '슬픔'이, ③은 '황홀한'과 '재앙'이, ④는 '외로운'과 '눈부심'이 서로 상치된 역설적 표현이다.
- 4) ⑤ (해) 띄어쓰기는 논리성을 전제로 하는 인간의 질서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인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나 부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어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5) ⑤ (해) '본질적 자아와 일치할 수 없는'이라는 뜻
- 6) ④ (해) 이 시는 초현실주의 작품임에 유의한다.
- 7) ⑤ (해) [가]의 '거울'은 화자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고, [나]의 '유리창'은 헤어진 사람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통로이다. 유리창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대리물인 별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 8) ⑤ (해) 자아의 단절이 심화되어 부재와 실재의 역설이 드러난 연을 찾는다. 즉, 자아 분열(自我分列)이 나타난 곳은 '내말을못알아듣는', 화해의 '악수받을줄모르는', 내외사와는 동떨어진 '외로된사업에골몰하는' 등이다.
- 9) ⑤ (해) [가]는 맞디막 연의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꼭섭섭하오.'에서 드러나듯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끝내 화합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기>의 화자는 마지막 부분의 '눈물과 위안으로 잠은 최초(最初)의 악수.'에서 드러나듯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는 두 자아가 화합하지 못하지만, <보기>의 분열된 자아는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10) 4연 (해) '거울'은 자아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면서 자아 탐구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 11) <보기>의 시에서는 '나'와 '나'가 처음 잠은 악수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지만, '거울'에서는 거울 속의 '나'가 악수를 거부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다.
- 12) 분열된 자아를 발견하게 해 주는 역할, 우물 (해) 윤동주의 '자화상'에 나오는 '우물'은 시적 화가자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사나이'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 13) ② (해) '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와 '외로된사업'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 14) ① (해) ㉔의 서로 반대지만 닮았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 방식에 해당한다. 사랑을 위해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역설에 해당한다. ① 서정주, '견우의 노래', ② 유치환, '깃발', ③ 조지훈, '봉황수', ④ 김광균, '외인촌', ⑤ 정지용, '유리창 I'
- 15) ① (해) ㉔은 내가 거울을 보지 않는데도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비친다는

내용으로, 내면적 자아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시구이다.

- 16) ③ (해) '거울 밖의 나'는 '현실에 존재하는 나'이며, '거울 속의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현실 속의 나'가 인식하는 '자기 자신', 즉 '나'의 내면 세계이다.
- 17) ⑤ (해) 의도적으로 난해성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 18) ③ (해) 이 시의 두 자아는 일치되고자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대립과 분열의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고 보기 힘들다.
- 19) ④ (해)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자아 분열을 보여 주고 있다. ④번 또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0) ① (해) 이 시는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단어나 구절을 붙여 쓰는 등의 실험적인 기법(초현실주의 기법)을 통해 인간 내면의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